

2020년 4월에 발간된 『여성문학연구』는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재난을 통과하며 위축된 일상과 자유로움이 제약된 현실에서 고통과 억압을 실감으로 인지하며 만들어진 소중한 결과물이다. 이번호에도 20년 동안 지속된 페미니즘 연구의 내공이 고스란히 담겨 다양한 장르와 시각의 연구들이 풍성하게 수록되었다. 여성작가의 작품을 문학사에 재정위하는 작업으로 연속하고 있는 기획논문에서는 한무숙과 최정희의 5,60년대 소설들을 재해석하였고, SF소설을 대상으로 한 특집논문은 과학기술의 가능성을 페미니즘에 접목하는 읽기를 통해 페미니즘 논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확장된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후속세대 연구를 소개하는 추천석사논문에서는 김남천의 여성인물을 기존의 방법론과 다른 자율적 인간화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를 실었으며 서평에서는 여성글쓰기와 젠더 범주의 정치성 및 복합성에 관한 저서를 대상으로 최근 페미니즘 연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을 수록하였다. 일반논문 역시 고전과 현대, 그리고 문예물과 현장의 기록물을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역량 있는 연구들이 수록되어 페미니즘 연구자들에게 좋은 참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집 논문에 최근 평단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SF소설을 페미니즘적 독법으로 분석한 두 편의 글을 실었다. 김미현의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윤이형과 김초엽 소설을 중심으로」는 윤이형과 김초엽의 소설을 수행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며 이들 소설이 과학기술적 지식과 문학적 상상력을 결합시켜 여성의 현실을 심도있게 서사화하고 있음을 해명하였다. 논문은 남성/여성의 이분법적인 젠더 사유를 벗어나는 길을 과학의 불확실성과 미결정성에서 찾는 테크노페미니즘적 시각을 적극 수용하여 작품을 읽음으로써 과학기술시대에 페미니즘 논제를 풀어가는 확장된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강은교와 김은주(교신저자)의 「한국 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와 듀나의 「두 번째 유모」를 중심으로」 역시 SF 소설이 제시하는 잠재적인 대안 세계가 현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미래의 결정에 비판적으로 개입할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SF소설의 비판적 성찰력을 적극 탐구하고 있다. 두 연구는 모두 SF 소설에 내장된 정치성에 주목하며 과학기술이 기존의 젠더 사유와 같

등에 대한 근원이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페미니즘적 논제를 풀어가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SF 소설 연구에 좋은 참조가 되리라 기대된다.

기획 논문은 여성 작가의 작품을 다시 읽고 문학사적 위치를 바로 잡는 연속 작업으로 두 편의 글을 실었다. 강지윤은 「역사화된 삶과 젠더적 삶—환상의 파열 지점으로서의 젠더: 한무숙 소설을 읽는 하나의 관점」을 통해 해방 이후 대표적인 ‘여류작가’로 분류되었던 한무숙의 작품을 역사적 맥락화라는 관점에서 다시 읽고 있다. 그는 한무숙 작품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세밀한 감정과 심리가 향유 기원을 탐색하는 역사적 시각에 닿아 있음에 주목하며 이러한 엄정한 역사적 시각이 결국 젠더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감정이나 심리처럼 개인의 가장 내적인 공간에 개입된 역사적 계기를 의미화하는 작업은 인물들이 삶의 세목 속에서 여자의 역사나 남자의 역사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러한 역사화를 통해 젠더성을 노출시킴으로써 한무숙 소설이 젠더의 메타 텍스트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배상미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넘어서려는 연합적 정치들: 해방기 최정희 소설을 중심으로」는 최정희의 해방기 소설을 대상으로 지배자에 대한 비판적 저항성을 여성의식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여성 인물들의 행위를 남성성에 대한 저항 의미로 읽고 있는 이 논문은 R. W. 코넬의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주디스 버틀러의 ‘연합적 정치’ 개념을 사용하여 남성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여성 인물의 욕망이 연합적 정치를 구성할 가능성의 조건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정희의 소설이 냉전 체제 하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의해 소외되고 배제된 자들이 중심이 되는 가능성을 구현했다고 재평가하였다.

후속 세대 연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추천석사논문에는 정우경의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역동성」을 실었다. 김남천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을 독자성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 논문은 여성 인물들이 작가의 의도나 서사 전략을 넘어선 자율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동안 김남천 소설의 여성 인물을 해석하는 일반적 독법인 주체화 방식에서 벗어나 ‘인격화’와 ‘인간화’라는 범주를 설정하여 그의 소설이 점차 자율적 인물형인 후자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작가의 생물학적 성이나 서사 전략에 귀

속되지 않는 여성 인물의 자율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적극 부각시키고, 리얼리즘 서사의 여성 인물 읽기에 대한 흥미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서평은 여성 글쓰기와 젠더의 의미를 묻는 2020년에 발간된 책들을 대상으로 두 편의 글이 실렸다. 정고은의 「쓰기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정희진의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쓴다』·『나를 알기 위해서 쓴다』(교양인, 2020)와 장영은,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민음사, 2020)를 대상으로 여성 글쓰기의 통스러움과 치열성,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 형성되는 여성의 주체화 과정을 저자의 시선을 따라 제시하였다. 한우리의 「젠더를 복잡하게 사유하기」는 모니크 위티그의 『모니크 위티그의 스트레이트 마인드—이성에 제도에 대한 전복적 시선』(행성B, 2020)과 수전 팔루디의 『다크룸—영원한 이방인, 내 아버지의 닫힌 문 앞에서』(arte, 2020)를 소개하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젠더 범주, 이성애, 성 정체성 등에 대한 저자들의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젠더 범주와 이성애를 정치적 시스템으로 간주하며 그것의 파괴를 강조하는 위티그의 유물론적 주장과, 인종, 정치, 문화 등과 결합된 성 정체성의 복잡성을 강조한 수전 팔루디의 주장이 두 편의 서평을 통해 명료하게 드러난다.

이번호에도 일반논문에도 다양한 장르와 시대를 아우르는 심도 있는 연구들이 실렸다. 고전과 현대의 서사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운동 현장의 기록을 분석한 논문까지 문예작품과 산문, 기록물을 아우르는 폭넓은 장르의 글이 수록되었다. 서경희의 「조선 후기 이모에 대한 관계 인식과 감성—남성지식인 기록을 중심으로」는 이모에 관한 방대한 조선 기록물들을 분석하여 이모에 대한 관계 규정과 인식, 감성을 살펴보고 친족으로서 이모의 위상과 의미를 탐구하였다. 황인순의 「신화적 공간의 생성과 여성 주체—〈차사본풀이〉의 강림 부인을 중심으로」는 〈차사본풀이〉를 중심으로 신화성이 생산되는 공간과 대상을 재해석하여 일상의 공간에 제의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삶과 언어에 나타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있다. 서정자의 「김말봉의 『밀림』 재론—아나키즘과 기독교정신 구현 방식을 중심으로」는 그동안 통속소설로만 알려졌던 김말봉의 『밀림』의 사상성을 규명한 연구로 다각적인 고증 자료를 동원하여 작품에 나타난 아나키즘과 기독교 사상을 탐구하였다. 류진희의 「월남 여성작가의 ‘이북’ 공간—임옥인의 「월남전후」와 박순녀의 「어떤 파리」의 경우」는 월남한 여성작가들이 자신의 기억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구조해내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여성 서사를 역사화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허윤의 「87년 이후 광장의 젠더와 계보—한국여성대회, 장애 여성운동, 퀴어문화축제를 중심으로」는 87년 이후 광장을 자유주의로 읽는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여성대회, 장애여성운동, 퀴어문화축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드러냄으로써 비가시화된 젠더 하위주체들의 계보를 복원하고 ‘남성 시민 주체의 정치적 공간’으로 간주됐던 광장을 탈구축하고 있다.

『여성문학연구』는 그동안 여성작가와 문학은 물론 담론과 매체,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영역을 확장하며 페미니즘 연구를 선도하였다. 페미니즘 연구에 대한 관심의 부침 속에서도 전문 학술지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하며 이론과 작품 분석, 자료 발굴, 그리고 문학사적 작업까지 페미니즘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내실을 다지는 작업을 꾸준히 하였다. 분석 대상과 세부 시각에 차이가 있지만 이번호에 수록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젠더 범주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과 도전은 이러한 연구의 역량과 깊이를 보여주는 성과로 주목된다. 페미니즘의 논제 역시 다른 정치적 논제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다시 묻고 성찰해야 함을 새삼 깨닫게 한다. 이러한 논의와 물음이 페미니즘 논의를 자극하는 긍정적 계기로 작용하여 이를 토대로 더욱 활발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여성문학연구』는 학술 대중들이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에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을 없애기 위해 2020년 3월 9일부터 오픈 액세스를 선언 했음을 밝혀둔다. 우리의 선언을 계기로 어떤 장애물도 없이 지식이 쉽게 공유되어 사회에 의미있는 변화가 추동되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위원 송인화

특집논문 포스트휴먼, 페미니즘, 여성 서사

김미현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 —윤이형과 김초엽 소설을 중심으로	10
강은교, 김은주	한국 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 :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와 듀나의 「두 번째 유모」를 중심으로	36

기획논문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에 다시 읽는 여성 작가

배상미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넘어서려는 연합적 정치들 : 해방기 최정희 소설을 중심으로	64
강지윤	역사화된 삶과 젠더적 삶: 환상의 파열 지점으로서의 젠더 —한무숙 소설을 읽는 하나의 관점	91

일반논문

황인순	신화적 공간의 생성과 여성 주체 —〈차사본풀이〉의 강림 부인을 중심으로	118
서경희	조선 후기 이모에 대한 관계 인식과 감성 —남성지식인 기록을 중심으로	142
서정자	김말봉의 『밀림』 재론 —아나키즘과 기독교정신 구현방식을 중심으로	172
류진희	월남 여성작가의 ‘이복’공간 —임옥인의 「월남전후」와 박순녀의 「어떤 파리」의 경우	209
허윤	87년 이후 광장의 젠더와 계보 —한국여성대회, 장애여성운동, 퀴어문화축제를 중심으로	232
이현미	디아스포라 기억의 재현과 탈냉전 역사쓰기의 가능성 : 「굿바이 마이러브 NK」와 『유역』	265

추천석사논문

정우경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역동성 300

서평

정고은 쓰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316

-장영은,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 민음사, 2020

-정희진,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쓴다』·『나를 알기
위해서 쓴다』, 교양인, 2020

한우리 젠더를 복잡하게 사유하기 325

-모니크 위티그, 허윤 역, 『모니크 위티그의 스트레이트

마인드—이성애 제도에 대한 전복적 시선』, 행성B, 2020

-수전 팔루디, 손희정 역, 『다크룸—영원한 이방인,
내 아버지의 닫힌 문 앞에서』, arte, 2020

후보 332